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7월 12일(금)

(음력 6월 10일)

Пятница

12 июля 2019г.

№ 27(11684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5일(금) 주정부에서 학교 최우수 졸업생들을 위한 <학업에서 특별 우수성>메달 수여식이 있었다. 학생들을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 권한 대행이 축하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종양구제 외래진료센터 개소

2021년 말까지 사할린주 종합병원 내에 종양구제 외래진료센터 3곳을 개소할 계획이다. 1차 환자 진료 시 환자 수송의 최적화와 한 달에서 두 주 사이로 진단시기를 단축해 악성으로의 전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에는 뇌종양진료센터가 개소되어 1교대에 45명의 환자를 접수하도록 한다. 이 진료센터는 지방의 돌린스크, 아니와, 코르사코프, 네벨스크, 홈스크, 쿠릴스크, 세웨로 쿠릴스크, 유즈노 쿠릴스크, 토마리 구역들과 연계되어 진료한다.

내년에는 포로나이스크 구역 종합병원을 기점으로 종양 진료센터는 1교대에 35명의 환자를 접수하여 스미르니흐, 마카로브, 우글레고르스크, 티모스브코예,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크 구역과 연계하여 진료한다. 2021년에는 오하에 종양구제 진료센터를 열어 1교대에 18명의 환자를 접수토록 하여 노글리키 구역과 연계해 진료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종양 진료센터는 종양의 악성 전이를 신속하고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필요한 특별 진단 전문의들을 갖추고 있다.

이는 <암 질병과의 투쟁> 지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종양 외래진료센터가 계획되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올해 사할린 잔류 1세대, 무료 진료를 부산에서

2019년 제4차 사할린 1세대 동포 진료로 7월 27일 사할린 어르신 12명이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추무진)을 통해 2016년부터 사할린 1세대 동포 한국 초청 진료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사할린 어르신 72명이 3차례에 걸쳐 서울에 위치한 한국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밀검사와 이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위치한 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에서 정밀검진과 치료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수)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열린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알렸다.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민족협력사업부 공인재 부장과 이정미 대리, 정선의료재단에서는 이상로 부원장과 배진호 부장이 사할린을 찾았다.

올해는 국제의료재단에서 1세 30명, 인솔보호자 지원에 414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번에 우글레고르스크, 홈스크, 토마리, 고르노사위드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어르신 12명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단체는 15년간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도록 애를 썼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



가 너무 많습니다. 현재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수는 500여 명인데 그중 한국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약 120명입니다. 그중 70여 명이 이미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50명 정도 한국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봄에 간다고 해서 처음엔 신청했는데 여름철에는 발일 때문에 못 간다고 거절을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필자에게 진료 신청 희망자가 적힌 인원수를 보여주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공인재 부장은 "이번에는 공개로 유차(종류에 따라 차례를 정하다)를 하고 시설 좋은 환경, 이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편찮다고 해서 정선의료재단 온종합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30명의 어르신들이 무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한인회에 연락해서 추가 희망자가 있으면 올해에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단신

사할린 주지사 후보로 5명 남아

사할린주 선거위원회는 사할린 주지사 후보 등록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가 끝났다. 후보로 나선 8명은 등록을 위해 최종 단계에서 지방 의원 지지표와 무소속 후보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2000표를 받아야 했다. 7월 11일 저녁에 선거위원회에 무소속인 예카제 니라 통마초와 변호사와 스웨틀라나 이와노와 주두마 의원, 그리고 <스프라웬들리와의 러시아>정의당 소속의 알렉산드르 아니스트라토프가 지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서류를 제출한 후보 5명은 최종 후보 명단에 못 오를 수도 있다.

10일간 이들의 문서들은 선거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한 후 등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4일 어민의 날 기념

7월의 둘째 일요일에는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어민의 날로 기념한다. 사할린주의 주요 경제 분야 중 하나인 수산업은 어획과 생산가공, 어류 생산과 보존에 있어 러시아 수산업 발전 전략을 선도해가는 선두지역 중 하나다.

사할린통계국 정보에 의하면 2018년에 사할린주에 총 어획량은 47만 4800톤에 달해 2017년 보다 21% 증가했고 생선통조림을 11,80만 개를 생산했다. 갑각류와 조개류 채취량은 39,700톤에 달했고 해산물물은 500톤에 달했다. 냉동생선과 생선 가공 통조림 34만5500톤을 수출했다. 사할린의 총수출품 중 수산물 수출이 5.3%를 차지한다. 수출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44.7%, 중국으로 43.9%, 일본이 9.3%에 해당됐다. 수산물 수출 품목에는 냉동생선이 84.1%인데 이중 냉동 명태가 47.4%를 차지했다.

수산업의 선두지역으로서 사할린주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남중 동화작가, 해외 정착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사할린에 파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제교류 해외정착거점 예술가파견사업으로 2011년부터 해마다 사할린에 작가들을 보내고 있다. 올해의 파견 작가로 지난 5일(금)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한 김남중 작가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사할린에서 지내게 된다.

1972년생인 김남중 작가는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으며 1998년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동화책과 청소년 소설 약 50권을 펴냈고 MBC 창작동화상, 올해의 예술상, 제8회 창비 좋은어린이책 창작부문 대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다. 북극곰을 보러 한 달 간 북극에 다녀올 정도로 곰을 좋아하는 김남중 작가는 사할린의 드넓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야생곰을 꼭 보고 싶다고 했다.

새고려신문사는 해마다 작가와의 만남을 주최하는데 이번에도 김남중 작가를 초청하여 한국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열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 항공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바람이 크다

아시아나항공, 7월 9일 사할린-인천 노선 운항 중단

7월 9일부로 마지막 유즈노사할린스크행 아시아나항공 노선이 운휴(運休)하게 되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가 아시아나항공 사할린 지점 홍정환 지점장과 만나 이와 관련 얘기를 나누었다.

— 아시아나항공이 사할린에 1998년에 들어와서 21년간 운항했는데 항상 보다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을 대해 주어서 사할린 주민들이 만족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21년간) 사할린-인천 간의 탑승객 수와 항공기 운항수에 대한 통계정보는 있나요?

— 우선 21년간 저희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주신 동포 한인분들, 교민분들, 사할린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서 단 한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무척 다행입니다. 지난 21년간 저희 아시아나항공은 약 5500여 회의 운항을 통해 65만명의 승객을 수송하였습니다. 사할린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알고있는데, 인원수로보면 사할린 전체 인구가 한 번씩 저희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시아나 항공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유즈노사할린스크-인천 노선을 운휴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시아나를 타는 승객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사실 아시아나항공만 놓고 본다면 꾸준히 이익을 내는 견실한 회사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되어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한국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인수자가 결정되면 현재의 어려움도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금번에 운휴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 드리자면, 2014년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 경기 침체와 루블 가치 하락 영향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였고,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결국 원화로 환산하여 수익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승객 감소와 더불어 루블 가치 하락이 운휴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점장님께서 이곳 사할린에서 4년간 근무하셨고 사실 6월이면 지점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할린 지점 운영을 마무리까지 하시게 됐네요. 9일 마지막 항공기를 보낸 소감은 어떠신지요?

— 7월9일, 어제, 마지막 편을 보내면서 눈시울이 잠시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 이륙하는 모습을 직원들과 함께 보면서 왠지 다시 사할린 공항에서 아시아나 로고를 새긴 비행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외국속담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뜻밖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 사할린 지점에서 직원들 6명쯤 근무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장 안타까운 질문입니다만,

모두 능력 있는 직원들이니 충분히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직원은 이미 새로운 직장을 구한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새 출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생은 끝과 시작의 연속이듯이 저희 직원들의 힘찬 시작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사할린을 찾아오는 아시아나 항공이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20여 년 동안 한국-사할린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의 가교가 되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사가 특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운항 중단은 안 된다.’는 청와대에 보낸 청원서(아래 게재)가 이유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청원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 청원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만, 금번 청원을 통해 국적기의 사할린 운항의 필요성이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사할린-인천노선은 어느 노선과 달리 단순히 승객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류를 통해 과거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일조하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일체감을 갖게 하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수송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결과가 반영되는 데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 그리고 아시아나에서도 동포사회를 위해 늘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마다의 한국어 말하



▲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7월 9일 아시아나 항공 사할린-인천 노선 마지막 항공기

기 대회를 비롯해 한러 문화축제 등을 후원했습니다. 올해 우리 신문 70주년 기념 문예콩쿠르도 지원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아시아나에서 사할린-인천 운휴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 운휴 기간이 잠깐이었으면 좋겠고, 운항이 다시 재개되길 기대합니다.

— 본사에 계신 본부장님께서도 금번 운휴 결정을 많이 안타까워하시며, 새로운 인수자가 결정되면 재운항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을 한인 및 교민 분들께 잘 설명 드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나항공이 사할린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바람이 크며, 저도 곧 한국으로 복귀하는 만큼 사할린노선이 재운항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할린에서 아시아나항공 사할린 재운항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들에게 사할린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 설명

7월 11일 18시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민족적 사할린 안내>기획의 일환으로 강연이 열렸다. 전문가로서 주 향토박물관 역사과의 예브게니야 파센체와 과장이 강연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과 남사할린과 쿠릴 지역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귀속된 후 파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곳으로 소비에트 국민들을 이주시켜야 했다.

예브게니야 파센체와는 모임에서 1940년대 말기-1950년대 초기에 사할린주에 체류했던 첫 이주민들의 노동조건과 일상생활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은 사할린과 첫 추억 및 사할린 지역 학술탐사 시 수집된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에 대한 본토인의 증언을 토대로 했다.

문의 전화8 (4242) 45-25-28.

Островитянам расскажут о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Встреч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гид" пройдет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11

июля.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а выступит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истории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Евгения Пашенцев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территорий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восстановить разрушенное хозяйство и переселить на эти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Евгения Пашенцева расскажет о бытовых и рабочих условиях первых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ибывших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конце 1940-х — начале 1950-х годов. В основу выступления легли воспоминания старожилов о первых впечатлениях об острове, об отношениях с местным населением, собранные во время научных командировок в райо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과 쿠릴열도 인구, 5개월간 자연적 감소

사할린주에서 1-5월간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다. 주민등록사무소들에서는 신생아 2254명과 사망자 2624명이 등록되었다.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370명, 2018년 같은 시기에는 217명이었다. 신생아가 사망자 보다 더 많은5개 지방자치체는 다음과 같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아니와구역, 쿠릴구역, 세웨로쿠릴스크구역, 유즈노쿠릴스크구역이다.

(7면에 계속)

아시아나 항공 사할린-인천 노선 운휴 반대 청원 전문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20 여년 동안 한-사할린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의 가교가 되어준 아시아나 항공이 금년 7월 9일 마지막 운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기업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때 효자노선으로 불리던 한-사할린 구간이 운휴되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물리적·심리적 가교

사할린은 광복 이후 한-러 수교까지 45년 간 하늘길도 마땅길도 막혀, 일제시대 강제징용 되었던 우리 한인들이 강제 체류하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의 후손이 현재 2만 6천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물리적으로 한-사할린을 연결했을 뿐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한 평생 그리워하던 고국과 연결해 준 심리적 연결고리였습니다. 유일한 대한민국 국적기가 운항 중단된다는 소식에 사할린에 남은 2만 6천여 동포들과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 한 4천여 명의 1세 동포들이 다시 국경이 닫히는 듯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둘> 각종 정부사업의 협력자

아시아나 항공은 그간 사할린 동포 관련 사업의 고마운 협력자였습니다.

외교부의 영주귀국, 행정안전부의 유골봉환, 적십자사의 모국방문, 역방문, 친지방문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큰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셋> 경제적 가치

최근 블라디보스톡, 캄차트카에 이어 사할린은 한국인에게 극동러시아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사할린주는 1년 예산이 연해주(주도 블라디보스톡)의 4배나 되는 경제적으로 매우 건실하며,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러시아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2-3년간의 실적 저조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기 어려움은 잘 알면서도, ‘운항 중단’이 아니라, ‘운휴’라는 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3만여 사할린 동포와 잠재적 사할린 방문 한국인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A항공사의 한-사할린 노선 운휴 계획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항횟수 감소나, 같은 계열사의 저가항공도 좋습니다. 모국과 우리의 연결고리를 부디 유지시켜 주십시오!

(2019년 7월 7일 청원접수 종료)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쿠즈네초바 마리아 저자 소개

저는 사할린 코르사코프에서 출생하여 사할린 철도대학 (경제 보안 전공)을2019년 올해 졸업했습니다 . 한국어는 처음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에서 배웠습니다. 2013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한 후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계속 했고 한국과 한국어, 현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갖고 한국방송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 배우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 제 글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수상을 받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 다. 문예콩쿠르에 참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런 대회를 더 자주 개최하여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새롭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콩쿠르 조직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쿠즈네초바 마리아

한국 대학생 할

요즘에 러시아 사람들 중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대학생활에 관심이 많고 한국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러시아 대학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주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의 생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러시아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은 오는 학기에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들을 스스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관심 있게 수업을 듣고 한눈을 팔지 않으며 교수님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이 큰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자리를 미리 예약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아서 밤이나 낮이나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직장을 보는 눈도 높아서, 복지가 좋고 연봉이 높은 직장에 가기 위해 그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경쟁도 셉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끼리 과제를 했냐는 질문에, 눈코 뜰새 없이 밤새워 공부했더라도 시치미를 떼며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삶을 더 깊게 파헤쳐 보면, 그밖에도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집이 학교와 멀거나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대학교 내 기숙사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많아 기숙사의 빈방이 없는 경우 학생들은 매일 멀리서 수업을 들으러 통학하거나, 근처에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원룸을 빌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거액의 경비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학비와 등록금도 썩 편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자주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

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와 직무로 두 배로 고된 생활을 하느라 애를 먹고 파김치가 되는 것은 다반사고, 편히 다리 뻗고 자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대학생활이 마냥 지옥 같지만은 않습니다. 대학교에 다양한 동아리가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골라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보충수업이나 다양한 행사들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교양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친구들도 널리 그리고 많이 사귄 수 있게 합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말이 많은 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에 참석하면서 수업이나 교수님에 대한 좋은 조언을 줄 선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후배들은 선배들과 조속히 친해지고 싶어서 자주 얘기도 하고 비행기를 태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배하고 좋은 사이가 돼야 필요하면 선배가 도와줄 수도 있고,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을 줄 수도 있는데다가 후배가 실수했을 때도 쉽게 눈을 감아 주거나,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경우에 도움의 손길을 선뜻 내밀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때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먹거리, 게임 등의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그중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공연은 보통 유명한 가수들을 섭외합니다. 공연은 큰 규모의 행사라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공장(空講 앞 강의와 뒤 강의 사이에 강의가 없는 때)을 만들어서 취미활동이나 대외활동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으니 한국대학생활은 쉽지 않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물이 묻는다 / 장시우

당신은 고요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떤 고요를 원하시는지

자잘한 소란쯤 무시할 수 있는 배포는 가졌는지

이를 떼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소란 같은 것

지나가는 비가 난간을 두드리는 간격 사이의 정적

산그늘 아래로 어둠이 밀려올 때

심장의

혹은 새벽이 아침으로 낮을 바꾸는

그 찰라의 소요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는 어떠신지

당신에게 몇 등급의 고요를 드려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서

고요에게 대신 물오 봐 드리려고

당신은 당황하여 침을 꿀꺽 삼킨다

그러나 당신이 삼켜야 할 것은

침묵이나 침묵 같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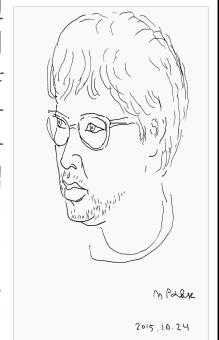
오늘은 물 안이 무척 잠잠하니

물의 바깥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당신의 고요도

“아침보다는 밤이 좋겠어요. 저는 꼭 외계인을 한 번 만나 보고 싶었거든요. 이왕이면 오밤중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보지만, 어쨌든 외계인은 아침에는 방문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애들도 좀 게으른 편인가. 제 생각으로는 어둠이 깃드는 해질녘 즈음에나 찾아올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느닷없이, 불현듯, 후속하고. 저야 뭐 멍하니 책상 머리에 앉아 뭔가를 쓰다 말고는 ‘아, 모야, 깜짝이야!’ 이러며 대화를 이을 텐데요. 저는 대화형 인간인지라, 뭐. 어쨌든 맞은 편에 앉은 외계인도 저처럼 빠릿빠릿한 스타일은 아닐 것만 같은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직업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필요한 직업은 아무래도 ‘시인’인 것 같다고. 이토록 예민하고, 또 이렇게 순간의 결을 붙잡아 언어로 기록하는 시인들이야말로 근사하잖아요. 이를테면 침묵과 침묵같은 걸 어떻게 나눠야 할 지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 다만, 이렇듯 미묘한 과장을 일으키는 섬세한 언어에 감탄할 수밖에!”



서울에서 허진원.
2019.07.09.

올해 사할린 잔류 1세, 무료 진료를 부산에서

(1면의 계속)

정선재단 배진호 부장은 간단히 재단과 온종합병원을 소개하고 부산 일정을 소개했다. 진료를 받을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3일간 정밀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치 않은 어르신들은 1주일 후에 귀국하고 앞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최대 1개월간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게 된다. 배진호 부장은 온종합병원은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수준 높은 전문의들이 진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할린 1세분들과 보호자들은 부산에 있는 동안 문화역사탐방을 할 기회도 주어진다. 현재 부산에 영주귀국하신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들과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정선의료재단 관계자가 전했다.

부산병원에서 진료가 끝난 후 몇 개월 후에 병원 측에서는 사할린을 찾아 진료받은 초청환자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 이후 부산에 가게 된 어르신들은 정선의료재단 이상로 부원장과 만나 본인 질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할린 잔류 1세 동포 초청진료사업으로 이곳 어르신들의 모든 진료비, 항공권, 숙박비는 한국 측이 지원한다. 보호자에게도 항공권, 숙박이 무료로 제공된다.

(취재/글 배순신 기자, 사진/이에식기자)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Через школьные тернии к награде и к денежной премии

5 июля, в з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чествование луч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выпускников – 2019. 25 медалистов получили знаки "За особые успехи в учении" и денежную премию в размер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ладателей знака было 87. Столь серьезное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номинантов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Наталья Мурашова объяснила ужесточением требований к соискателям.

В этом году для полу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знака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 два года учиться на пятерки и сдать все экзамены ЕГЭ не ниже чем на 75 баллов.

— Я сдавал русский, физику, математику — 96, 96, 100 баллов. Работал весь год, а на экзаменах так сложилось, что не волновался, не было нервов, и из-за этого не допустил ошибок, — рассказывает один из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стобалльников этого года Никита Иванов. — Планирую поступать на информатику и вычислительную технику или по-английски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то есть буду не просто программировать, но еще разрабатывать и проектировать вычислительные системы. Грызть гранит науки поеду в Московский инженерно-физ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МИФИ). Не знаю, вернусь ли потом сюда.

12 из 25 выпускников окончили школ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четверо представляли Холмск, следом шли Корсаков, Оха, Ноглики, Поронайск.

Че Ю Ни, выпускница школы №7 г. Поронайска, планирует поступать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а специальность IT, программист-разработчик. Девушка поделилась с нами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каково это, получить первую медаль в своей жизни: «Находиться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 это очень волнительно и я не ожидала, что смогу сюда попасть. Меня переполняют радость, гордость за себя и теперь можно выдохнуть со спокойной душой. Но впереди ещё поступление, так что не расслабляемся».

Большинство выпускников-отличников традиционно не планируют оставаться для учебы на Сахалине, а предпочитают учёбу в таких городах, как: Москва, Санкт – Петербург, Владивосток, Хабаровск и др.

Александра Федосова



Конкурс эссе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зер конкурса (лауреат премии 3-ей степени)

Поездка в Корею

Пак Александр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номере № 25, 26)

- Уважаемая! Достаточно, хватит кушать! Мне становится страшно за вас и,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вы лопнете прямо сейчас, - умолял ее заведующий.

- О, простите старческую невнимательность и поймите меня.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от моего внимания ускользнуло правило, гласившее об обязанности посетителя съесть все то, что он заказал и тем самым выразить почтение хозяину данного заведения. Я набрала слишком много и теперь мне никак не справиться с этой едой! - Тетя Мен Хи была расстроена. В такое положение она еще никогда не попадала. И в её-то возрасте!

- Ну что вы! Вам нужно было сразу обратиться ко мне и рассказать обо всем. Несмотря на правила, мне гораздо важнее здоровье моих посетителей. Не нужно стыдиться, с каждым такое может случиться. Вы ведь, судя по акценту, нездешняя, не так ли? И мальчик, как я вижу, говорил на русском. Вы из России и приехали навестить родных, не так ли? Я слышал о вашей группе по новостям. Жаль, что у меня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общаться с вами, я бы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хотел побеседовать с теми, кто прожил большую часть жизни в России.

- Вы да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е, как же я благодарна вам! Мне бы очень хотелось, чтобы вы навестили нас в квартале для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Думаю, что наши мужчины с радостью примут вас в свою общину. Я живу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сестрой и своим мужем в доме 103 квартире N. Мы будем всегда рады вас видеть. Еще раз,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Саша, скажи спасибо вот этому дяде. Молодец, но мы уже засиделись, нам пора. Сун Ок, наверное, уже волнуется.

Мы покинули ресторан, а вслед нам глядели остальные посетители ресторана. Но это все было в моем будущем, а сейчас вернемся в самолет.

- Настя, смотри, какое забавное желе. И вкусное!

Удивительно, но после обеда, состояние наших пассажиров заметно улучшилось. Тошнота и головокружение удиви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прошли,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оставшуюся часть полета Саша вновь увлеченно мог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амолет, беседовать с сестрой и периодически просить Кока-Колы у стюарда, который, почему-то вместо напитка вытаскивал бутылочку коньяка.

Перелет с Сахалина в Корею занял всего 3 часа. Сахалинская 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приземлилась в одном из аэропортов Сеула. Затем были очередные рутинные проверки, в ходе которых Саша отметил, что у многих «коренных корейцев» паспорта были темно-зеленого цвета.

С признанием Японией её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удьбы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но перевезенных с их родины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начался новый виток корейск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тогом которых стало согласие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финансировать программу возврата те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были насильно вывезены из Кореи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эту категорию попали поколения первой и второй волны. Многим было жаль покидать свои семьи, по стремление вновь воссоединиться со своей родиной у стариков была особенно сильной. Заветной мечтой моего деда, отца моего отца - было вернуться на свою родину, мне жаль, что он не дожил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до столь знаменательного события. В г. Ансане и, затем, в Сеуле на деньги, выделенные япо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были постро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квартал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вернувшихся корейцев.

Наши старики жили в Ансане и именно туда нам предстояло добраться.

Первые Дни.

Саша, как бывает у многих с перелетом в другой часовой пояс, потерял чувство времени. В пять часов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чуть приподнялись спящие веки. Пять часов! Раньше такое казалось невозможным. Первые ощущения, как всегда, непривычные: пульсирующий туман в голове, томящееся сознание, заговорившее человеческим голосом, окончательно проснулись, осталось преодолеть утробное тепло постели. Саша позволил себе еще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блаженного удовольствия, затем небольшое волевое усилие и вот оно – начало нового дня, сулящее новые неизведан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Робкие шаги, небольшое усилие и дверь открыта. В ванной немного непривычно: интерьер отличался цветовым оформлением, внутренним убранством, освещением и наличием счетчиков, неотвратимо отсчитывающим количество истраченной воды, а значит и денег. В зеркале отражение мальчика, которое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трансформируется в совсем иного, непривычного для нынешнего взгляда, субъекта,

Заглядываю в гостиную, там все спит и покоем. Обратно в комнату, куда проникли первые лучи солнца, преодолев сопротивление толстого зеленого стекла. От того и свет в комнате особенный - светло-зеленоватый. Освещение всегда играет особую роль в удовлетворении зритель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Хорошо подобранное освещение - отрада для глаз - создаёт гармонию цвета.

Томительное ожидание часа общего подъема уступает небольшому, быстротечному сну. Перевернулся на другой бок, чтобы получше увидеть полусон, полурезы, ощутить тонкую грань, когда «чувствуешь» своё присутствие в обоих мирах.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лышится настойчивое и надоедливое шуршание, рушится гармония, один из миров бесследно исчезает:

- Бабушка, кушать хочется, - пожаловался Саша.

- Подожди немного, сейчас стол накрою.

Бабушка, как всегда спокойная, я бы даже сказал меланхоличная, все чувства она хранила глубоко в себе, лишь в редкие моменты случается видеть её в возбужденном состоянии.

На утреннем столе миеккук (суп из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рис и немного ким-чи. Все показалось немного 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и невкусным:

- Спасибо. Бабушка, я пойду к Насте.

- Айго, айго! Не успела насмотреться на тебя, как уже уходишь. Ну хорошо, погуляй немного и передай Насте, чтобы навестила меня сегодня. Надо разобраться с теми вещами, которые вы привезли. И зачем их так много? О чем думали, а?

Ба, честно говоря, я не знаю. Но знаешь, как тяжело было нести все эти сумки! - с какой-то обидой сказал Саша - ну, я пошел.

И вот я попадаю в закрытый двор.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для наших стариков в Ансане называют «Сахалинская деревня», а на Сахалине – «Родная деревня». Замечательно, но ничего похожего на настоящую сахалинскую деревню здесь нет.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обвинений в нарушении санкций по КНДР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ыступило с протестом против беспочвенных высказыва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 том,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могла передать КНДР закупленные в Японии материалы «двой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то есть те,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ы в военных целях. Указывается, в частности, что травильный газ, применяемый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мог попасть в КНДР 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создании хим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и обогащении ура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заявил, что три наименования материалов, процедуру экспорта которых Япония ужесточ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считаю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Поэтому весь процесс их ввоза и возможного вывоза находится под строгим контролем.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ведётся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экспортёрами и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Сам процесс перевозки и хранения травильного газа очень сложный и дорогостоящий, поэтому его передача Северу невозможна. К тому же нет никаких подтверждений того,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компании нарушили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анкции. МИД РК потребовал от Японии конкретных подтверждений выдвинутых обвинений, но в Токио пока сохраняют молчание.

Сеул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обновления турпоездки в Кымгансан и Кэсон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обновле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ездок в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и город Кэсон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журналистам KBS, 30 июня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по вопросам КНДР Стивен Бигэн, возвращаясь в Вашингтон после встреч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сообщил о возможности улучш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ША и СК, а также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еверу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если Пхеньян заморозит 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 время дву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санкции отменены не будут, но возможны уступки, не касающиеся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Речь идёт о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ездках в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начавшихся в 1998 году, и в город Кэсон, которые начались в 2007 году. Данный проект был приостановлен в 2008 году. Власт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его возобновления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туризм не входит в санкционный список. Тем не менее, движение наличных средств в рамках турис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ожет быть определено в качестве нарушения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Туризм на частном уровне под эту категорию не подпадает. Кроме того, КНДР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т над активизацие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РК и США обсуждают данную тему, и с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ы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ая реакция. Всё зависит от результатов рабочих переговоров США и КНДР.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музыкальных фильмов в Чэчхоне-2019 пройдёт с 8 по 13 август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музыкальных фильмов в Чэчхоне-2019 пройдёт с 8 по 13 августа в городе Чэ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8 ию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комитета фестиваля и мэрии города. В презентации фестивал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500 человек. Мэр города Ли Сан Чхон заявил, что 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в 15-й раз, вошёл в тройку крупнейших в стране.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восьми секций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126 картин из 36 стран. Откроет фестиваль 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лента брит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итера Веббера (Peter Webber) - Inna De Yard - The Soul Of Jamaica. Подготовлены различные дневные и ночные программы, концерты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музыкантов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Центр адаптации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Ханавон отмечает 20-летие

8 ию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отметил 20-летие со дня откры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центра адаптации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Ханавон. В программу мероприятия в городе Анс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ошли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музыкантов из числа северокаорейских беженцев, в том числе пианиста Ким Чхоль Уна,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лицам, внёсшим особый вклад в адаптацию беженцев в РК, вручение сертификатов об окончании спецкурса в центре Ханавон 70-ти беженцам. Подготовлена встреча выпускников этого учреждения. Данный центр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8 июля 1999 года в Ансане. В декабре 2012 года в уезде Хвачхо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учреждён второй центр.

Жизнь Тен Тхе Сика

Отражени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лия Дин

История многомерна и многогранна, сложность ее процессов и событий вызывает споры у ученых и множество предположений у обывателей. Однако одного у истории отнять нельзя – это всегда наука о человеке.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а через призму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Сахалин P.S.» рассказывает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с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Юлия Дин.

Начало этому было положено еще в советский период, когда истории рабочих людей – ударников соцтруда, рыбаков, нефтяников, шахтеров – часто публиковались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 и книг. Познание истории через призму жизни обычных людей всегда вызывало и вызывает до сих пор интерес у читателей.

Одним из людей, история жизни которого отражает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а, является Тен Тхе Сик, русскоязычные соседи называют его Виктором Павловичем. История эта –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орейца, свидетеля японского периода, послевоенного советского прошлого и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настоящего.

Отец Тен Тхе Сика (как и сам он) родился в Корее в период, когда его родина (как и Южный Сахалин) была колонией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Он не попал под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мобилизацию, как 16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в 1940-х поехал на Сахалин сам – заработать в колониальной Корее были так малы, что прокормить семью и детей не было ник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 В то время Корея очень отсталое государство было. Только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занималось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Поэтому уже малолетние дети – пять, шесть лет – ходили в огород, траву выдергивали и – в то время в Корее угля не было в деревнях – и все листья собирали граблями. И в летнее время собрали – оставили на зиму... вот маленькие дети уже этим занимались. И кроме этого, еще корову держали дл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 поэтому за ней надо ухаживать, и, в общем, отдыхать некогда было. И голод был... я там тринадцать лет прожил, я в сорок третьем году приехал на Сахалин – чистую рисовую кашу, белую – сейчас мы чистую рисовую кушаем – только когда урожай снимаем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и где-то до нового года, ну один-два раза поесть. А так все смешано – то бобы, то ячмень, то просо, смешанную кашу ели. Вот так мы жили.

Отец завербовался добровольно для работы на шахте на Карафуте в 1939 году – его направили на шахту в Бошняково. Писать отец не умел, но присылал письма, написанные чужой рукой, а однажды даже – деньги. Но семья все равно бедствовала, поэтому в 1943 г. на семейном совет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тправиться к отцу. Мать продала дом и, собрав детей – самого Тен Тхе Сика, его старшего брата и младшую се-

стру, – отправилась на далекий Сахалин.

Семья поселилась в выделенном бараке. Юного Тен Тхе Сика поразил Сахалин – несмотря на холод, в доме было электричество, чугунная печь, вода (хотя за ней приходилось ходить на колонку), мыло (невиданная вещь для Кореи) и баня, в которой шахтеры могли помыться после смены. Детей определили в школу, а зарплата отца (он работал проходчиком в шахте) позволяла семье довольно сносно существовать.

В августе 1944 года отец Тен Тхе Сика и старший брат, также как и 3 тысячи других корейских



Тен Тхе Сик родился в 1930 году,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Работал учителем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физики и математики (1950-1965). Советник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тарейши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дчик 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гражден медалью «Ветеран труда».



Ученики второго класса Тельновской вечерней средней школы рабочей родины. Второй слева во втором ряду - Тен Тхе Сик. 1952 г. Из личного архива Тен Тхе Сика

шахтеров, попали под «повторную вербовку».

Испытывая сложности с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ой угля в метрополию,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закрыли 19 шахт Карафуте, а рабочих перенаправляли для работы на шахтах о. Кюсю. Там они проработали до конца войны, а их семьи остались на Карафуте.

— Папу забрали по «повторной вербовке» в 1944 году. В это время многие удрали через пролив – маленькой... лодкой или катером. А мой отец тоже после 45-го года из Японии приехал нас искать – семью искать. Нелегально прибыл – море закрыто, значит, нелегально. Папа как приехал – на катере, у японцев столько рыбаков было – очень много... Из них некоторые хорошо знали дорогу, морской путь хорошо знали на катере. Они большие деньги брали – тысячу иен и один мешок риса. Вот так они возили.

Ну, некоторые не доехали – шторм и погибли, некоторые доехали – это почти год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очень слабо контролировал море. Мой отец вот так, это я как сейчас помню, 6 ноября 45-го года вернулся. Вернулся без денег, грязный. В Японии отпуск был – он рассказывал: те, которых мобилизовали, отпуск должен быть. Армию как отпускают, это тоже, как армию. Где-то 28-го сентября. И денег-то нету, денег он ни копейки не привез. Только часы руч-

ные привез, и то он рассказывал, он кому-то деньги занимал, тот деньги проиграл, не мог отдать, поэтому отдал часы ручны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грязный тогда папа был – он долго не прожил, он все время в проходке работал в шахте.

Сахалинские шахты по сравнению – это не шахты, там, в первых, температура другая, там в майке работать надо – жарко. Здесь, наоборот, в фуфайках зимой. Вот это я хорошо помню. Хорошо, что папа вернулся, если папа бы не вернулся, нам, может быть, было бы совсем плохо – мне пятнадцать лет только было. Он все-таки живой, домашнюю работу выполнял, а я уже чувствовал, что папа не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поэтому я сразу работать пошел – я хотел в институт поступать, но денег не было. Поэтому решил – в то время хорошо было – заочное, вечернее,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очень хорошо, это я очень ценю, потому что сам прожил это.

Несмотря н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 а в тех сложных условиях после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это было настоящим чудом – семья не обходилась без потерь. Старший брат Тен Тхе Сика вернуться вместе с отцом не смог и остался в Японии. Встретиться им довелось только в 1989 году.

«Сахалин P.S.» №13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Газификация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ускорен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вещания с участием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Виталия Маркелова.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вопросам газоснабжения и газификац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азозаправоч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 регион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 газовой компании носи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Решено, что к 2020 году будет актуализирована генеральная схема газоснабжения и 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соглашения был посвящен визит Виталия Маркелова.

«Газпром» ускорит работы по газификации Холмского,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и Томар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Также, в планах есть - перевести все виды транспорт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роме воздушного,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го топлива. Еще одн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в ходе визита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Газпром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газовой компании будет передан участок зем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с ледовым дворцом, спортивным залом, бассейном, тиром, которыми с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жители области. Также на переда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появит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офис «Газпрома» и жилые дома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компании.

Сегодня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ляет всего 30 процентов. Это примерно вдвое ниж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ого показателя. Стопроцентный уровень газификации, которого добиваются островные власти,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и открыть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местных компаний.

Совместные пл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и «Газпрома» включают также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компримированным и сжиженным природным газом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Комплекс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СПГ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вести в Поронайске. Завод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две очереди. Каждая мощностью 5 тонн СПГ в час.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строят в 2021-2022 годах.

Линия «1-300» работает на Сахалине уже 3 месяца

Сервис ежедневн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вою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При помощи нег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правоч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 работе медучреждений, записаться в областную стоматологию, решить проблемный вопрос, возникший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поликлиники или больницы. Телефонная линия была запущена в апреле.

Анализ трех месяцев работы системы «1-300» показал, что среднее время разговора оператора с одним абонентом составляет 4 минуты. За это время надо понять суть вопроса, предложить вариант его решения, определить медучреждение, в котором помогут пациенту.

Всего за три месяца в колл-центр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более 42 тысяч звонков. Динамика резко увеличилась с 6 июня, когда началось распределение талонов в стоматологию.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вопросы по оказанию медпомощи в больницах, поликлиниках и диспансерах.

Особая категория абонентов – люди старше 60 лет, у которых есть сложности с записью на прием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Им помогают отложить талоны к врач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их поликлиник и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востребовано. Ежедневно 70-90 человек старше 60 лет обращаются на линию,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талоны к терапевтам или узк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В еди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е операторы видят карточку пациента. Абоненты оставляют телефоны дл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впоследствии им сообщают о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Нередко сахалинцы перезванивают на линию «1-300», что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оперативную помощь. Иногда просят передать добрые слова врачам, у которых проходили лечение.

Линия «1-300» – один из механизмов для увелич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едется системно. Для решения кадрового дефицита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 около 200 врачей, 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новой техники из бюджета области выделено 2,7 млрд. рублей.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проект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на колесах»

Моби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кабинет работал 5 июля в одном из дворов в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ойт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осмотр,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й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Только за первые два часа обследоваться захотели более 100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и профосмотры до конца года пройдут более 20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иагностика помогает выявлять опасные недуги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А выездная форма работы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ает медицину к людям. На первый выезд отправились два мобильных комплекса. Один – это передвижной рентген-кабинет, где можно пройти флюорографию и маммографию. Во втором комплексе вел прием терапевт, работала мини-лаборатория, где исследовали анализы крови на сахар и холестерин и проводили еще один вид диагностики – ЭКГ.

– Очень удобно сделали. Вышла из подъезда, и уже попала в поликлинику. Я нечасто хожу по врачам,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в январе была. А здесь медики сами приехали к дому,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идия Петрова.

Перед приемом врача сахалинцы проходили анкетирование. Ответы на темат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тоже помогают терапевту определить факторы риска развития различ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 Это не разовая акция. С середины июля уже расписан график работы по конкретным адресам. Будем выезжать и на предприятия, чтобы люди могли пройти профосмотр ил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не отвлекаясь надолго от своей работы,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врач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Олег Саяпин.

Пока комплексы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предел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выезды 2-3 раза в неделю. В дальнейшем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их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в конце июня по инициативе руководства региона в сахалинских поликлиниках введен единый день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Пройт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й медосмотр теперь можно по средам с 17 до 20 часов и в субботу – с 9 до 15.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доме-интернате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стартовал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Массовую утреннюю зарядку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для жителей социа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провели спортсмены-волонтеры. Спортивная акция «Здоровье в порядке – спасибо зарядке» – еще одн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ское долголетие», который был запущен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Под ритмичную музыку более 20 пенсионеров 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егодня вышли на зарядку во дво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интерната. После спец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упражнений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ждал фруктовый фуршет. Такие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физкульт-минутк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здесь дважды в неделю.

Задач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чтобы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жизн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ановилась только интереснее. Участ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лголетия»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посещать театры, концерты, выставки, кино. Проект охватил уже вс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К концу года в планах подключить к нему более 10 тысяч пенсионеров старше 65.

Спортсмены-волонтеры хотят устраивать утренние зарядки и в других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бласти. А в доме-интернате также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занятия скандинавской ходьбой. На случай непогоды в учреждении есть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гд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тренироваться на адаптивных тренажерах.

В доме-интернате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и инвалид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живают 260 человек. Для развития их физ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в рамках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такж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лекции «Долголетие». Пенсионеры увидят видеофильмы, презентации, ролики о здоровье, питании, спорте.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роить веселые старты «Главное, ребята, сердцем не стареть» и спартакиады для всех проживающих.

Два детских сада, школу и дом культуры построят в Дальнем

Рабочая встреча главы региона с жителями сел Дальнее и Елочки длилась более трех часов. За это время было задано 60 вопросов.

В ходе разговор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 перспективах Дальнего на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 2021 году в районе появятся два детских сада на 330 и 240 мест,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достроят новую школу на 550 мест, идет подготовка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рпуса школы №19 на 220 мест.

В Дальнем, как и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важнейшие социальные вопрос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збавиться от нехватки мест и второй смены в школах, ликвидировать очередь в детские сады. Повыш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требует медицина, к 2022 году в селе появится но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Через два года в районе возведут дом культуры,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 Дальнем и Елочках наконец появится наружное освещение, а в следующем заверш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роги между селами. Тогда же будет сдана развязка, соединяющая старое и новое Дальнее.

Кроме тог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ликвидации около 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Квартиры получат более 150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и Елочек. Принята программа, есть конкретные адреса и даты по переселению. Часть селян получают новые квартиры уже в начале 2020 года.

Один из первых вопросов, прозвучавших от жителей Дальнего на встрече, касался проблемы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 новом микрорайоне вода поступает в краны с примесью. Давление низкое. Мэрия города занимается этим вопросом, но мы хотим, чтобы вы взяли его на свой контроль, – обратился к главе области Антон Абакумов.

Промежуточный этап работ уже проведен: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давление, установлены насосы. В 2020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ы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го водопровода от водозабора до потребителя, – сказа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Жители Дальнего также попросили главу области реш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й вопрос.

Автобусов, которые к нам ходят не хватает. Особенно это заметно в период учебы. Наши дети не могут уехать в школу, – пожаловались сельчане.

На встрече решено, что новые модели движения в село опробуют за неделю до первого сентября.

Жителей Елочек интересовал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свое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генплан разработают с учетом мнения селян.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встреча, на которой обсудят и этажность жилых домов, планируемых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 размещ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спортплощадок, зон отдыха.

Несколько вопросов поступило к главе области от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Вопросов, касающихс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много. Все они важные. Поэтому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к встрече подготовиться заране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озд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в нее могут войти все желающие, чтобы обозначить проблемное поле и наметить варианты решения, – сказа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На конкурсе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19» идет голосование

С 1 до 22 июля на сайте golos.sakh.com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оддержат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торыми стоит гордиться.

В конкурсе шесть номинаций: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Доброволец»,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Выдающийся родитель», «Юный гражданин», «Известный островитянин». Имена 50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зва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определили сам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воих заявках земляки рассказывали о людях, кто спасает людей и животных, занимается волонтерством, воспитывает приемных детей, ведет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на пенсии, прославляет острова своими талантами.

Заявки приходили почти из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Охи и Южно-Курильска. Одно письмо – от футболиста сборной «Сахалина» – поступило из Грузии. Самой популярной оказалась номинация «Ак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 здесь сразу 18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обеду.

Среди них – Народная артистка России Клара Кисенкова, уже более 50 лет она выходит на сцену Чехов-центра под аплодисменты театралов. Владислав Яблоков и Виктор Фролов сохраняют спортивное долголетие. Не один раз холмчане одерживали побед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лыжных марафонах, в областной спартакиаде пенсионеров и других серьез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Номинация «Гражданская позиция» знакомит с сахалинцами, совершившими героические поступки. Южносахалинец Евгений Чайченко связал жизнь с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ой МЧС России.

В другой номинации – выдающиеся родители. Анна и Виктор Седых воспитывают шестерых приемных детей и одного кровного ребенка. Дружная семья представлял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финал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ссамблеи замещающих семей» и заняла призовое место в конкурс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олосование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держать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в шести номинациях. Выбор людей, которыми стоит гордиться, защищен от накруток и происходит открыто – голосующие сразу видят результаты.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опроса, 23 июля, состоится заседание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где подведут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Горд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2019». В состав комиссии входят эксперты-общественники и журналисты, каждый из них имеет право отдать 100 голосов за одного из кандидатов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Возглавляет конкурсное жюри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дкин.

Победители «Гордости-2019»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ы и призы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конкурса –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Sakh.com».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올해 사할린졸업생 25명 <학업에서 특별 우수성>메달 따내

올해 사할린 졸업생 25명 <학업의 특별우수성> 메달 따내

지난 5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주정부 대강당에서 주내 학교 우수졸업생들이 <학업에 특별한 우수성>메달을 받았다.

수여하는 이 메달과 함께 부상으로 받는 상금은 올해 10만 루블리였다.

작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올해는 졸업생 25명이 이 상을 받았다. 작년에는 87명이었는데 올해는 이 메달 수여 조건이 많이 엄격해진 편이다.

수상자들은 최근 2년간 모든 과목에서 5 점을 받아야 하고 국가졸업시험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했다.

"금메달은 가장 똑똑하고 재능있는 젊은이만이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황금 자산>이며, 너희들에게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사할린주에는 직업적 전문가와 고급 전문가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꼭 그런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이 덕담을 했다.

우수졸업생 중에는 항상 동포 학생들이 있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다. 그중 하나가 석춘복 양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리체를 졸업한 여학생은 금메달을 따내는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했다.

석 양은 모스크바 러시아 화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하고 의약품 관련 전공을 하고 싶다고 표명했다.

2019년에는 약 3000명이 국가졸업시험을 보았고 이 시험에서 졸업생 769명이 80점 이상을 받았으며 11학년생 5명은 전문수학, 지리학, 러시아어와 물리학 시험에서 100 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취재: 글/폐도소와 알렉산드라, 사진/이예식)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주에 혼인 1005건, 이혼 978건 등록된 데 비해 2018년에는 같은 시기 혼인 1105건과 이혼 1129건이 등록되었다.

러시아 이민청 사할린주관리국 정보에 따르면 1-5개월간 사할린과 쿠릴에 7367명이 체류했고 그중 47,5%는 영구거주를 위해서다. 7163명이 사할린을 떠났고 그중 76,6%는 전 거주지에서 등록을 취소했다. 사할린주 내에서 2595명이 거주지를 변경했고, 이민자 증가 수는 204명이라고 사할린주통계국이 전했다.

За пять месяцев 2019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 январь-ма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2254 родившихся и 2624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70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8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217 человек.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пя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нивский», «Курильский»,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005 браков и 978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1105 браков и 1129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8 года.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 - май 2019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о 7367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47,5%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7163 человека, из которых 76,6%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2595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составил 204 человека, сообщили в Сахалин-стате.

<고르니 워스두호>스포츠종합단지, 일요 아침체력단련 실시

사할린 스포츠종합단지 <고르니 워스두호>는 7월 7일부터 시작하여 늦가을까지 매주 일요일 무료 체조 수업을 실시한다. 체육부에 따르면, 첫 체력단련에 열린 안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연령층 수십 명이 모였다고 전했다.

아침체조는 <고르니 워스두호> 중간역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다양한 체력 단련을 진행한다. - 가벼운 달리기, 스트레칭, 기구를 이용한 단련, 무술 -등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민첩하고 강인한 특성이 발전한다고 사할린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자 사할린스포츠연맹 총재인 블라디슬라프 글루호브가 강조했다.

이와 같은 수업은 스키 훈련장(벤스카야 5번지)에서 일주일에 3번 진행하고

<고르니 워스두호> 스키장에서는 스키 슬로프 오르기가 추가된다.

<고르니 워스두호>에서 체력단련은 대략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스키 훈련장 부근에서 거리체조에 합류할 수도 있다. 이 체력단련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6시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약 400여명의 주민들이 규칙적으로 무료 아침체력단련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수업은 다른 도시들 -코르사코프, 홈스크, 돌린스크, 아니와, 유즈노쿠릴스크-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чал проводить воскресные зарядки

Сахалинский спорт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с 7 июля и до глубокой осени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 бесплатные зарядки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минспорта, на первой такой тренировке, несмотря на легкий туман, собрались десятки человек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Зарядки проходят с 10:30 до 11:30 на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Упражнения берутся разные — элементы легкой атлетики, растяжка, силовые, единобор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лимпийского совета области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Союза сахалинского спорта Владислав Глухов, развиваются скоростно-силовые ка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Подобные занятия уже ведут три раза в недел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ы (улица Венская, 5), но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добавился еще и подъем по склону.

Зарядки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будут вести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до ноября. Также можно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уличным занятиям у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ы — они проходят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средам и пятницам с 6:30 до 7:30.

Сейчас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мерно 400 человек регулярно ходят на бесплатные утренние тренировки. Такие же занятия проводят и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например в Корсакове, Холмске, Долинске, Аниве, Южно-Курильске.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2019 한글학교 교사·교장 초청연수 개최

52개국 180개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 250명 참가

한국어 교수법, 학교 발전방안 공동연구 예정

2019 한글학교 교사·교장 초청연수가 오는 7월 8일 오후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7박8일간 개최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연수는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육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52개국 180개 한글학교에서 250여



명의 한글학교 교사와 교장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한국어·문화·역사 교수법 실습, 한글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등 한글학교 교원으로서 역량 제고에 필요한 한국역사 특강, 차세대 동포를 위한 통일 교육, 비영리단체로서의 한글학교 운영, 대륙별 경험교환, 한국 역사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한우성 이사장은 “향후 동포사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인재육성의 주역들인 한글학교 교장·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번 연수가 재외동포재단과 한글학교 간의 소통강화는 물론 개별 한글학교 단위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97년 재단 설립 때부터 동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재외동포 대학생 286명 한국 방문

재외동포재단, 2019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10일 개막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역사 체험 프로그램 시행



2019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가 오는 7월 9일부터 7박 8일 간 개최된다.

올해는 39개국 444명(재외동포 286명, 국내참가자 158명)이 참가하며,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5개 도시(부산, 안동, 순천, 공주, 서울)의 3·1 만세운동 현장을 찾고, 변화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 또한, 세계한인대학생 평화토론대회를 개최하여 최근 한반도 평화 이슈를 언어권별로 나눠 한인 대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2019년 토론 주제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의 관련성’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동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 연수는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국내외 차세대간의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연수단 사할린 한인협회 방문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대학원 연수단(61명, 단장 사회복지대학원 김희년 원장)이 지난 6-9일 3박4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다녀갔다. 역사문화탐방한 이들은 사할린 한인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진 비코브탄광,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 시네고르스크 등을 비

롯해 향토박물관,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동포 역사와 러시아 문화를 접할수 있는 곳을 찾았다. 물론 사할린한인회생동포 위령비 등에 참배하기도 했다.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이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제대로된 개념을 갖고 있다.

지난 8일(화) 한국 방문단은한인문화센터를 찾아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단체 활동가들과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한국 손님들을 위해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할머니 무용단과 <하늘>사물놀이그룹의 공연이 있었다.

박순옥 회장은 인제대학교에서 사할린한인동포 역사와 현황에 관심을 가진 데에 대해 감사를 인사를 했다. 주한인협회와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표단이 서로 선물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김희년 원장은 “61명이라는 인원이

함께 단체로 해외로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사할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의미가 각별한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 사할린과 그 역사에 대해 생생하게 알게 되면서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거나 눈물을 떨구기도 하였다” 며 이곳 사할린에서 느끼는 감정이 각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제대학교 대표단의 사할린방문은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에서 많이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제대 사회복지학과·대학원 연수단은 7월 9일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본사 기자)

감사합니다!

새고려신문사는 본지 창간 70주년 관련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전채련 어르신,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 박순옥), <가가린>호텔(사장 권행자), <사흐인스트로이>회사 (대표이사 권운호), 샤모니즘 박물관(관장 양종승), 미래혁신전략연구소(소장 서원열), <사라>회사(사장 엄주상), <그린솔류시온>회사(사장 안화자), <1+2>유한책임회사 (사장 이용길), <폴리그란드>회사 (대표이사서 엠게니), <스틸>미용실(사장 김정순), <세바스티안 스튜디오>미용실(사장 배 나제즈다), <피라미다>회사(사장 이체인), <스트로이마르케트>회사 (사장 오정태), <컴퓨터 살롱>회사 (사장 초이 안드레이), <사코렌마>회사(사장 손창진), <람코>회사 (사장 림종환) 재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БОЛЕЕ 100 ЗАКАЗОВ**

Нашим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з.а.з. (з.у.п.п.) Бя В.И.а.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